마지막 살점

(눅7:11-17)

11.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12.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13.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14.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멘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15.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16.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17.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마지막 살점>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본문에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과부의 독자가 이제 청년의 나이가 되었는데, 그만 죽었습니다.
이 죽은 아들이 과부의 마음에는 마지막 살점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살점이 떨어져나갔습니다.
자, 이 마지막 살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마지막 살점이 떨어져나가지 않으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립할 수 있는 신앙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신앙이 신앙일 수 있으려면, 그래서 신앙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아버지와 하나가 될 수 있으려면, 마지막 살점이 떨어져나가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박완서 씨의 글을 한번 인용을 해봅니다.
박완서 씨가 2011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2002년에 산문집이 하나 나왔습니다.

<두부>라는 제목의 산문집으로 그 중에 '마음 붙일 곳'이라는 글이 실려 있습니다.
부분은 제가 인용해서 읽어봅니다.
'내가 될 수 있는 대로 미소하고 속절없는 것들한테 마음 붙이려드는 것은 떠날 때가 되면 미련 없이 떠나기를 소망해서가 아닐까? 이렇듯 나름대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믿건만, 그러나 역시 죽음은 무섭다.'
여기서 '미소'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고 보잘 것 없는 것들을 말하는 거죠?
계속 읽어봅니다.
'… 중략하고 … 죽음이 무서운 것은 기억의 집인 육신이 소멸한다는 절대로 변경될 수 없는 사실 때문이고, 내가 육신에 집착하는 것은 영혼이 있다는 것을 못 믿어서가 아니다. 영혼이 있으면 뭐하나? 육신이 없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무슨 수로 알아보나 싶어서이다. 육신에 대한 찬탄 없는 첫사랑의 기쁨을 말한다면 그는 새빨간 거짓말쟁이다. 서로 끌리고 사랑하여 결혼한 남자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첫눈에 반한 건 근육질의 몸이 아니라, 관대하고 따뜻한 마음 때문이었노라고 말할 수는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그 눈빛 그 미소가 아니었다면 그런 좋은 심성이 무슨 수로 겉으로 나타날 수 있었겠는가? 눈빛도 미소도 육신에 속한 게 아니던가?'

아, 참 솔직한 말씀이죠?
솔직한 말씀을 참 아름답게도 썼지요?
왜 죽는 것이 두렵습니까?
'육신이 없어지고 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무슨 수로 알아보나 싶어서이다.'
이것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앞에 나왔던 마음 붙인다는 겁니다.
왜 작고 보잘 것 없고 속절없는 것들에 일부러 마음을 붙이는 연습을 하고 계셨습니까?
그래야 마음 붙인 것들과 결별하게 되는 죽음이 다가왔을 때 마음이 덜 속상하고 덜 무섭고 덜 아플 수 있을까봐, 작고 속절없는 것들에 일부러 마음을 나눠주면서 마음을 붙이는 연습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연습을 해도 여전히 무서운 겁니다.
영혼을 안 믿는 것은 아니지만, 육신 없이 영혼만 있으면 뭐하나?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볼 수가 없는데, 그 아름다운 사랑의 기억들을 다 상실해버리고 마는데…

아, 이해가 갑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이 죽음을 앞둔 심경을 묘사해낸 글입니다.
답답하지요, 최고의 지성이 죽음과 육체와 영혼과 내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사랑을 하게 되면 마음에서 진물이 나옵니다.
마음에서 진물이 나와서 사랑하는 대상과 붙어버립니다.
이게 마음을 붙인다는 얘기에요.
사랑하게 되면 마음에서 진물이 나와서 진물이 접착제 역할을 해서 사랑하는 대상에게 붙어서 그 사랑하는 대상이 마음의 살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죽는다는 것은 그 마음의 살이 된 것들에 대해서 찢어지는 아픔, 상실하는 아픔이 경험되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내가 죽지 않고 내 마음에 살이 되었던 사랑하는 대상이 먼저 죽을 때, 찢어지는 아픔이 느껴지게 됩니다.
마음이 찢기는 아픔을 느끼는 이유가 뭡니까?
마음에 살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마음에 살이 되는 사랑의 대상들을 찾아냅니까?
육체를 통해서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일평생의 과정은 이런 것이지요.
사랑하는 사람을 발견해내고 거기에 마음이 붙어서 내 마음에 살이 됩니다.
그리고 죽음에 가까이 다가가면서 죽음을 통해서 마음에 살이 되었던 모든 살점들이 다 찢겨져 나가고 상실되어버리고 잃어버리는 과정이 사람의 삶의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마음을 붙이며 살이 되었던 것들을 모두 다 떼 내고 죽음을 통해서 완전히 떼어내고 내 마음은 홀로 남게 되어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인생의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인성 과부, 유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1세기 당시의 과부의 형편이라는 것은 우리로서는 상상하기가 힘들 정도로 굉장히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여자가 스스로 경제적으로 독립을 이룰 수 있을 만큼 경제활동이 사회적 분위기 상 보장될 수도 없었고, 절대적으로 남자에게 의존되어서 살던 그 당시 유대 나라 안에서 과부라고 하는 존재는 고아와 똑같이 첫 번째 구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다행히 그래도 아들이 하나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마음을 붙이고, 그 아들이 이제 청년이 되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결혼을 할 것이고 가정을 꾸밀 것이고, 며느리를 두고 손자를 보면서 그래도 과부의 팔자가 필 날이 머지않았다고 여겨질 그때쯤에 청년의 나이에 이 독자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들이 청년이 되기까지는 이 과부가 나이가 꽤 되었을 텐데, 이 과부에게서 청년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더 이상 과부에게는 마음을 붙일 곳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완서 씨가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했던 이유는 마음 붙일 곳을 상실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붙일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 독자 외아들은 과부가 마음 붙이고 있었던, 과부의 마음에 살이 되었던 마지막 살점이었습니다.

마음 붙일 곳이 없다는 일, 이것을 이 지성인 박완서 씨는 그렇게 무서워했던 것이었어요.
사람이 마음 붙일 곳이 없는 것, 영원한 고독입니다.
한 달 참으면 되는 고독, 일주일 참으면 되는 외로움이 아니라, 군대 간 애인 3년 기다리면 제대해서 돌아오는 그런 참을 수 있는 외로움이 아니라 영원한 외로움이요, 영원한 고독으로 박완서 씨는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지옥이 무서운 것은 결코 그 어느 곳에도 마음 붙일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살점이 떨어져나가서 살아있지만 박완서 씨의 용어를 빌리자면 이미 죽음 속으로 들어가 버린 이 과부에게 예수님께서, 과부가 전혀 예수님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애절하게 구한 것도 없는데 예수님 스스로 불쌍히 여겨서 다가가시고, 울음을 멈추라 하시고, 아들을 살려내시고, 아들을 과부에게 돌려주십니다.
하나님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인간에게 있어서의 상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서 움직이지 않으실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마지막 살점이 떨어져나간 상태라는 거예요.
마지막 살점이 마음에서 떨어져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다가오

시고 당신이 이제 첫 번째 살점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들을 돌려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동묘지로 나가던 걸음을 멈추게 하고 아들을 살려내신 뒤에 이 과부에게 다시 주시고 예수님의 일행은 그 나인 성 안으로 들어갈 때, 더 이상 장례행렬은 성 바깥 공동묘지로 향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되돌아서 예수님 일행을 뒤쫓아 갈 텐데 예수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방금 살아난 아들 손을 잡고 예수님의 일행의 뒤를 쫓고 있는 이 과부의 마음속에 이제 누가 첫 번째 마음 붙일 곳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일까요, 아들일까요?
예수님 아니었겠습니까? 또한 그랬기를 바랍니다.
다시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게 무얼 말합니까?
그 아들을 소망으로 삼고, 그 아들에게 마음을 붙이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큰 비극이라는 얘기에요.

아담이 처음 태어났을 때, 아담의 마음은 마음이 어디에도 붙지 않은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 자신을 주십니다, 마음 붙일 대상으로.
날마다 일어나서 하나님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마음 붙이고 사는 것이 아담의 삶이었습니다.
이때 하와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아담이 하와와 연동하면서 사탄에게 동조하고 사탄의 말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등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덴 밖에 나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마음 붙일 대상들을 찾아낸 것이에요.
박완서 씨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일을 아담이 해낸 것입니다.
육체를 통해서 마음이 붙을 대상을 찾아낸 것이에요.
박완서 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에 대한 찬탄 없이 첫사랑의 기쁨을 말한다면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쟁이다’
육체를 통해서 사랑의 대상을 발견해내는 것, 그것 외에는 없다고 믿는 겁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이.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육체가 없으면 우리 마음이 마음 붙일 곳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까?
육체를 통해서 마음 붙일 대상들을 찾아낸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은 하나님아버지와 부활하신 주님과 천국을 마음 붙일 곳으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바람과 같아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뛰어난 지성이고 노벨문학상을 받은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한 성령을 알 수가 없지요.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 붙일 곳으로 천국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마음을 붙일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육체를 통해서 마음 붙이고 있는 모든 대상, 마지막 살점까지 다 떨어져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붙였으므로 내 마음에 살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부모든, 아니면 내가 일평생 일구어 온 사업이든지 간에 내 마음에 살이 되었습니다.
좋은 물건도 우리가 마음으로 사랑하면 마음에 살이 되어서 그것이 상실될 때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마음을 붙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체를 통해서 알게 된 것들 중에 마음이 붙어있는 상태로는 절대로 하나님이 내 마음 붙일 곳이 되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연합하여 하나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체를 통해 이 세상에서 마음 붙여서 마음의 살이 돼버린 마지막 살점까지 다 떨어져나가지 않으면 이 과부에게 개입해 들어오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입해 들어오셔서 내 마음 붙일 곳이 되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살점뿐만 아니라 우리는 과부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 붙인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상실하면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이 느끼게 되는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내가 죽은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실제로 찢어지는 고통 없이 내 마음에서 그것들이 떨어져나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로 마지막 살점까지 다 떨어져나간 뒤에라야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천국에 계신 하나님아버지가 내 마음 붙일 곳으로 내 앞에 나타나십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 내 마음이 붙어질 때 이제 내 마음은 육신이 죽건 말건, 가난하건 부하건 상관없이 그 하나님은 내 마음으로부터 떨어져나가시지 않고 영원히 내 마음 붙일 곳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생 아닙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
그리고 영생은 죽은 다음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육체가 죽어버리면 지옥으로 갑니다.
박완서 씨가 그렇게 무서워했던 영원한 외로움과 고독 속으로 던져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죽기 전에 십자가에서 이 세상에 대해 죽으면, 다시 말해 이 세상에서 육체를 통하여 마음 붙이고 있던 모든 대상, 마지막 살점까지도 십자가에서 다 떼어내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미 살아있는 동안에 내 마음에 마음 붙일 곳이 되어 주신다는 얘깁니다.
이렇게 될 때,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살점이 떨어져나간 과부의 상태를 불쌍히 여기시고 개입하시면서 그 아들을 되돌려 주십니다.
이렇게 지금 갖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이 있고, 이미 가진 것들이 있습니다.
다 십자가에서 떨쳐내는 겁니다.
다 떨쳐내서 주님의 긍휼하심이 내게 임하고 내가 주님과 하나님아버지께 마음을 붙였을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다 되돌려주시고 다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는 하나님께 붙은 마음이 거기서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마음 붙이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내가 죽었다, 내가 육체를 통해서 만나는 모든 사랑할 만한 대상들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죽은 자임을 스물네 시간 고백하면서 사는 동안에 우리는 그 대상에 대해서 붙지 않고, 그런 대상에 마음 붙이지 않고 있는 동안에만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의 마음 붙일 곳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마음 붙일 곳이 되어주시면 그것이 곧 나인성이 됩니다.
즐거움의 성이 된다는 얘깁니다.

왜 이 과부가 즐거움의 성인 나인성 바깥으로 나갑니까?

마음 붙인 곳을 잃었기 때문에.

마음 붙인 곳을 잃으면 우린 슬퍼지고 애통하게 되고 즐거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마음을 붙였을 때 하나님은 육체의 죽음도 갈라놓지 못하는 마음 붙일 곳이 되기 때문에 영원한 나인성, 영원한 즐거움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 벌기 전에, 건강 챙기기 전에, 자식 잘 기르겠다고 애쓰기 전에 먼저 마지막 살점을 십자가로 떨쳐내고 하나님께 마음 붙인 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을 받으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육체를 매개로 하여 마음 붙이고 있는 모든 마음의 마지막 살점들까지 다 떨어져나가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천국만이 내 마음 붙일 곳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복된 자들, 복된 즐거움의 성, 나인성의 시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